현불 논단

# 거리민주주의와 파시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민주주의 위기는 거리서 발생**
**내면의 파시즘 성향 발현 쉬워**
**군중 이분법적 사고, 증오 증가**

**타자 존중의 시민의식 선결과제**
**붓다의 연기법과 자비 속 해답이**
**'칠불쇠법'은 불교 민주주의 단초**
**붓다 가르침으로 시민의식 고양**

거리에 민주주의가 넘쳐흐른다. 수많은 깃발과 함성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인해 한동안 거리에 구호가 가득하더니 각종 단체의 함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번 주말도 서울 시내 교통통제가 많다는 보도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우민정치로 격하시킨 플라톤이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라고 할까. 아마도 놀라서 망연자실하지 않을까.

오늘날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담론 또한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위기의 제일 큰 원인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다. 즉, 대표자와 다수 시민 유권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다수의 이름을 빌린 소수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개념 조작만 하면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여행용 가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붓다 재세 시 마가다국의 왕이 밧지국을 침략하고자 하였다. 마가다국의 왕은 침략하기 전에 붓다의 의견을 구한다. "밧지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붓다는 직답을 하는 대신 아난에게 오히려 질문한다. "아난아,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여 의논하여 정사를 결정한다고 들었느냐?"

"예, 부처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왕성하여 오래도록 안온할 것이니 빼앗지 못할 것이다."

붓다가 아난에게 던진 7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칠불쇠법(七佛衰法)'이다. 이를 현대적 용어로 풀면 '민주주의를 하는 도덕적 문화국의 내용'이다. 이런 나라는 침범하여 정복할 수 없는 매우 강한 나라이다. 마가다 국왕은 결국 밧지국 침략을 포기하였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이다. 근대 민주주의 첫 시동은 프랑스혁명처럼 거리에서 나왔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가 성립된 후 민주주의가 거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위기임을 나타내는 것이리라. '거리 민주주의'에는 파시즘의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 말하는 파시즘은 정치 이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잠재의식과 일상적 삶의 양식 속에 웅크리고 있는 파시즘적 성향이다. 군중 속에 서면 이분법적 사고 틀에 빠지기 쉽고, 대상을 단순하게 보게 만든다.

증오의 대상이 명확해지고 증오의 용어에 익숙해진다. 영웅이 등장하고 조작된 상징에 흔들린다. 그래서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 정치인은 대중을 광장과 거리에 나오게 만든다. 이성을 철학의 중요 과제로 삼았던 칸트조차도 군중 속에 서면 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던가.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시민의식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민주시민의식의 기본 틀은 시민이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면서, 타자를 존중하고 세상사에 책임감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 즉 연기법과 무아 그리고 자비사상이 바로 민주시민의식의 핵심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민주시민의식의 형성에 연결하여 세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세속제(世俗諦)화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불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자칼럼

# 베트남전 양민 학살과 한국군

신성민 취재부 부장

"1966년 12월 6일 베트남 광웅아이성 빈선현 빈호아사에 한국군이 왔다. 당시 소식을 들은 성인 남성들은 몸을 피했고, 마을에는 노인과 여성, 아이들이 남았다. 마을에 도착한 한국군은 남은 주민들을 끌어내 총을 쏴 죽이거나 우물에 사람을 던져 놓고 수류탄을 던져 죽였다."

이는 베트남전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가 한국 정부에 진상조사와 사실인정,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제출한 청원서 내용에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베트남전 피해자들의 요구에 한국의 국방부는 보유한 자료에 민간인 학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답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은 비무장 민간인 9000여 명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전하긴 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베트남전 비무장 양민 학살에 대한 위령재와 참회 기도회를 여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베트남 양민 희생자 추모재를 베트남 불교 원오사와 함께 개최했다. 양국 스님들과 베트남 유학생 등이 200여 명은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들의 넋을 기렸다.

올해에도 이들을 기리는 행사를 베트남 현지에서 열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된 하미·퐁니 퐁넛 마을을 직접 방문해 참회와 극락왕생 발원 순례기도회를 봉행했다.

세 차례 걸쳐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피해자 증언도 이뤄졌다. "당시를 생생히 기억한다. 어머니, 언니, 동생과 친척이 모두 죽어서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고아로 살았다. 바라는 것은 학살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소리 한 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응우옌티안 씨의 외침에 스님들은 참회의 절을 올렸다. 진심어린 사과에 응우옌티안 씨도 감사 인사를 건넸다.

양민 학살뿐만 아니라 전쟁 시 자행되는 수많은 전쟁 범죄에 대해 한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38년의 일제강점기와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모두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위안부와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비무장 양민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위다. 우리 스스로 역사 앞에 당당해지려면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우리 옆에는 당장 과거사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일본이라는 '타산지석'의 모델이 있다.

"한국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강력히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의 말을 정부와 한국사회는 귀담아야 한다.

사과와 참회는 스스로를 반성함으로써 더 나아지며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사람에게도 국가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다.

社說

# 해외교류 확대 계기되길

파키스탄 정부 국빈 초청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이 11월 17일 부처님 고행상의 한국 전시라는 뜻깊은 성과를 냈다. 1700년 전 마라난타 스님의 한반도 불교 전래 이후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 한국불교에서 잊혀진 나라였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금 불교문화 교류의 장이 열렸다.

조계종 대표단의 귀국 후 고행상의 한국전시가 본격 추진된다. 많은 불자들에게 사진으로만 접하는 고행상 친견은 다시금 환희심을 자아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행상과 함께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사찰 건립과 같은 파키스탄 내 불교사찰 건립이다. 이슬람 국가에서의 불교사찰 건립에 대한 긍정적 화답은 그동안 불교에 배타적으로만 알아왔던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게 한다.

그동안 한국불교계는 많은 불교국가와 정기적인 대회와 함께 성지순례를 골자로 한 민간교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 혹은 이슬람 국가와의 불교문화를 골자로 한 교류는 개별적인 방문 외에는 한국불교계에서 사실상 전무했다. 이번 파키스탄 정부의 열린 자세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종교로서 기독교, 이슬람 국가에 접근하기 보다는 문화교류로 종교간 간극을 좁히는 것이 우선이란 점이다. 채식을 중심으로 한 사찰음식, 그리고 불교음악과 무용 등 이웃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거부감이 없이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고려불화가 한국전통미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사찰음식 또한 한국전통음식의 일종으로 호평받고 있다.

파키스탄 국빈초청 방문 이후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계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 불교문화교류의 새 장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불교문화 상식 알리는 창구 필요

조계종 포교원이 11월 21일 서울 북촌의 한 모임공간에서 흥미로운 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웹툰, 드라마 작가를 비롯해 일러스트레이터 등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불교콘텐츠 소재를 공유하는 자리를 연 것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마음챙김 명상부터 불교문화 강좌까지 작가들을 위해 맞춤형 진행이 진행됐다.

사전에 접수되고 함께 논의된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불교상식 조차 많은 작가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 보살과 이웃종교의 신의 관계, 불교에서의 귀신의 개념 등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거나 혹은 일부만 알려져 있었다.

불교계는 그동안 불교의 많은 상식을 알리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신도들에게도 다양한 불교상식을 접하는 것은 신행활동에서의 자연스러운 습득, 혹은 기초불교교리강좌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불자인 많은 국민들이 불교문화, 불교상식을 알게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조계종 포교원은 우리 문화산업 근간에서 일하는 작가, PD, 배우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불교문화를 알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불교문화를 접하게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미디어의 영향역이 더욱 강화되는 시기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불교문화와 상식을 알려가는 창구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확대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사명 | 지사장 | 연락처 | |
|---|---|---|---|
| 대구지사 | 손문철 | T 053-768-8008 | H 010-2813-8008 |
| 부산지사 | 이도경 | T 051-405-9402 | H 010-5640-8883 |
| 광주전남지사 | 양행선 | T 062-512-5003 | H 010-2629-1508 |
| 전북지사 | 조동제 | T 063-910-8977 | H 010-8642-7733 |
| 경남지사 | 성낙두 | T 051-512-1761 | H 010-3860-7008 |
| 영주지국 | 박영애 | T 054-634-3429 | H 010-9373-3778 |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